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부활절 제4주 】

인도 1부 : 김재흥 목사
2부 : 이재훈 목사

- 전 주 반주자
임재의 기원 오소서 평화의 임금 다 함께
예배로의 부름 담임목사
▲ 경배의 찬송 19. 찬송하는 소리 있어 다 함께
▲ 공동기도 다 함께

생명의 하나님, 어둠을 이기시고 빛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우리의 마음은 환하게 빛납니다. 그 빛이 날마다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눈이 욕망으로 어둡게 되어 길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외면치 마시고 빛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오늘은 아버지 주일입니다. 주님께서서는 너를 낳아 준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늙은 어머니를 업신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이어받은 생명의 흐름이 지금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하였습니다. 오늘 이 하루가 모든 생명의 근원을 기억하는 날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 참회의 침묵기도 다 함께
▲ 위로의 말씀 요일 1:7 인도자
▲ 교 독 문 98. 아버지 주일 다 함께
▲ 영 광 송 2. 찬양 성부 성자 성령 다 함께
2부대표기도 하현철 장로
2부응 답 송 찬양대
2부찬 양 199. 나의 사랑하는 책 다 함께
▲ 성경봉독 잠 23:22-25 I. 인도자
..... II. 김승현 집사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봉독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함께
찬 양 I. 이 가정 주인 되신 예수께 I. 마중물 찬양대
..... II. 광야를 지나며 II. 청파찬양대

말 씬	기둥이 무너지면	김기석 목사
거둬기도		다 함께
2부찬 양	579. 어머니의 넓은 사랑	다 함께
▲ 봉 헌	317.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1,5절)	다 함께
▲ 봉헌기도		김기석 목사
공동체 소식		김기석 목사
▲ 평화의 인사		다 함께
▲ 보냄의 말씀		다 함께
인 도 자: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그리고 생명의 아버지이신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그 생명이 날마다 우리를 다시 살게 합니다. 땅의 현실에 매몰되어 비틀거릴 때마다 우리가 어디서부터 와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 잊지 마십시오.	
다 함 께:	아멘. 자기 안에만 갇혀 주님의 부름에 응답하지 못했던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지혜로운 자녀를 둔 아버지는 크게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저희가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 찬 양	635. 주의 기도	다 함께
▲ 축 복		김기석 목사

주일 오후 집회	수요일 집회
청파성서학당 / 강의 : 김기석 목사	낮집회 / 설교 : 김기석 목사 저녁성경공부 / 강의 : 김재홍 목사

나의 인생관

… 내가 좋아하는 것은 종교적 진리가 아니고 진리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기쁨이 되는 진리는 인격성을 가진 것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인간의 기쁨은 인격적인 것입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한없는 기쁨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정밀한 법칙이라도 인생의 환희는 되지 않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은 인격뿐입니다. 인격과 인격간의 기쁨은 사랑입니다.

인생의 보배는 사랑입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사랑은 결코 완전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해도 있고 배신도 있고 무력(武力)도 있고 질투도 있습니다. 사람은 절실히 사랑을 원하지만, 올바르게 사랑할 줄 모르고 또 사랑하는 힘도 없습니다. 따라서 사람의 사랑에는 실망이 따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보이신 사랑은 절대적이어서 참으로 사람의 생명을 살어나게 합니다. 내가 슬퍼할 때 그리스도는 내 옆에 다가와, “너는 행복하다. 지금 우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니까”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진실이 내 영혼 와 닿으면 슬픔과 고난과 모순과 실패에 찬 나의 인생에도 희열과 희망이 솟아납니다. 그것은 결코 나 자신의 노력이라든가 깨달음, 명지(明智) 같은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어진 결과입니다. 내 속에 투사된 그리스도의 사랑의 작용입니다. 곧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

나의 신앙의 성질이 이러하니 과학과 종교의 관계도 내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무신론 과학자라도 부부의 사랑을 기뻐하고 그 사랑의 순결을 바랄 것입니다. 그리고 과학과 사랑의 모순이라든가 조화라는 문제를 꺼내면 꺼내는 일 자체가 웃음거리일 것입니다. 나의 신앙은 그리스도에게 사랑받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랑의 사귄이므로 과학과의 모순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는 사회과학에 종사해온 사람이지만, 신앙으로 주어진 마음의 희열과 자유로 과학적 진리의 탐구에 종사할 수 있었습니다. 신앙이 직접적으로 과학의 진리를 끌어낼 수는 없으나 신앙으로 자유로워진 마음은 과학적 진리에 민감하고 연구 대상에 대한 정확한 판단력과 불요불굴(不撓不屈)의 연구심을 기르게 됩니다.

진리는 유일하지만 인생은 복잡하고 진리를 이해하는 방법이나 각도에는 변화가 있습니다. 과학은 과학적 방법으로 예술은 예술의 방법으로 종교는 종교적 방법으로 진리를 압니다. 예를 들면 하늘의 별을 관찰하면서 과학은 저 별은 무슨 원소로 구성되어 있다거나 태양의 몇 배쯤의 크기라거나 지구에서의 거리는 몇 만 광년이라는 식의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예술가는 그 별을 우러러 시를 만들고 음악을 작곡합니다. 종교적 신앙을 가진 자는 우주의 창조주인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합니다.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상대를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술가가 “별이 깜박인다”고 말했을 때, 과학자가 “별은 깜박이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웃음거리가 되겠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별을 창조하셨다”는 신앙의 찬미에 별의 성립에 대한 과학적 가설로 반대하려 나서면 이 역시 우스운 일입니다. ...

세계는 나의 교실이고, 우주와 인생과 역사는 나를 위한 교재입니다. 나는 지금도 날마다 인생의 진리를 배우면서 희망을 안고 살고 있습니다. 그 희망이란 우주가 완성되고 세계가 평화로워지고 우리나라가 정의의 나라가 되고 그리고 나 자신이 완전히 구원받는 일입니다.

나는 나의 인생관을 화려하게 말하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걸어가야 할 것이지 논할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인생관은 내가 걸어온 길로 스스로 나타나는 것이지 그것을 야단스럽게 남 앞에 고백하는 것은 내 취미에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 글을 쓴 것은 이것이 과학 잡지에서 온 의뢰였기 때문입니다. 과학자에게 인간으로서의 깊이와 인생의 윤기가 없으면 큰 과학적 업적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나는 결코 내 인생관을 남에게 강요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의 신자라도 혹은 무신론자라도 진실한 사람이면 나는 모두 존경합니다. 진실한 무신론자는 허위의 종교인보다 낫습니다. 사람은 항상 진실해야 합니다.

나는 나의 인생관을 있는 그대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만일 여러분이 바라신다면 여러분도 젊은 날에 좋은 교사 밑에서 성서를 배우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 마음으로 읽는 글 ■

식구

- 유병록

매일 함께 하는 식구들 얼굴에서
삼시 세끼 대하는 밥상머리에 둘러앉아
때마다 비슷한 변변치 않은 반찬에서
새로이 찾아내는 맛이 있다

간장에 절인 깻잎 젓가락으로 잡는데
두 장이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아
다시금 놓자니 눈치가 보이고
한번에 먹자니 입 속이 먼저 짜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데
나머지 한 장을 떼어내어 주려고
젓가락 몇 쌍이 한꺼번에 달려든다

이런 게 식구이겠거니
짜지도 싱겁지도 않은
내 식구들의 얼굴이겠거니

■ 헌금 영수기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곽정자 구명자 구재원 국지연 권미숙 권혁순 박혜경b김광일 이부용 김금순
 김남종 오복순 김성수 이희숙 김수경 김영미 김영순 김영호 김영희 김예준
 김용규 송 명 김민숙 김정길 최숙화 김정민 이혜령 김지훈 김태한 김형근
 김형옥 김홍수 전성호 문복순 박기영 박미연 박병구 박상옥 임서영 박숙미
 박창운 허정윤 서원금 서정순 송남필 송형운 하미림 신영신 안성호 김희숙
 안종일 정현주 양은혜 유경주 윤수연 윤영미 윤정득 은종인 이건호b윤영주
 이미휘 이순이 이승지 이용현 최연실 이은주 이인웅 오송경 이재문 이재선
 이재훈 이주는 류건형 이한림 김명희a이행진 이현죽 임광호 장승희 장영숙
 장의림 장현희 전찬익 이은자 정두리 정성식 정성훈 정원석 김현영 정재기
 조경자 조두희 오연훈 조미선 조병주 조영순 조준범 정한샘 지윤미 최 숙
 최옥자 최 현 하상애 하현일 한상경 한상익 정영선 홍운선 홍춘숙 황사라

감사헌금

김기석 김희우 김수진b김예준 김인석 이선화 김창숙 김은종 김태정 문금석
 박병구 김인순 박재영 이현정 방대권 우미나 백혜숙 변종복 양희선 윤선호
 이부곤 이상도 이태석 임영선 임채진 이영희 임혜진 전근우 정구봉 정승훈
 이주연 정윤성 서효진 지윤미 최혜정 황현성 이오복 무명2

생일감사헌금

박옥순 장영숙 전아영

녹색꿈헌금

문복순 윤미경 윤수진 무명5

■ 집 회 안 내 ■

예배	시간	장소	예배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대예배실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성서학당	13:30	대예배실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1:00	교육관
1청년부	13:30	유치부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2청년부	13:30	청년회실			

■ 교회소식 ■

1. **아버이 주일** : 오늘은 아버지 주일입니다. 원로분들(71세 이상)을 위해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예배 후 로비에서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2. **청파성서학당** : 오늘 오후집회는 청파성서학당입니다.
3. **교육부회의** : 교육부회의가 오늘 오후 12:30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4. **건의함** : 교회 공동체를 위한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층 로비에 건의함을 설치했으니,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예배 생활 안내** :
 예배 시작 전에 도착하여 조용히 예배를 준비합니다.
 예배실 앞자리, 안쪽 자리부터 앉도록 합니다.
 예배실 안으로 음료를 가지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물은 가능)
 휴대폰은 진동모드로 설정하거나 꺼둡니다.
 예배실 안에서는 예배 전후라도 기도하는 이들을 위해 정숙합니다.
6. **신앙실천** : 이번 주 토요일은 광주민주화운동 39주기입니다. 희생자들을 기억하며 추모의 시간을 가집니다.

다음 주 설교 본문

행 26:12-18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인도
1부	김기석	공동기도	인도자	김재흥
2부	김기석	청년 중	청년 중	김재흥

5월	1부 영접위원	권미정	헌금위원	하현철
	2부 영접위원	김정민	문홍일 김광일 이혜령 고숙이 김경혜	
	2부 헌금위원	곽권희 송형운		

오늘 식당 봉사	정현숙 백성래 임영선 서이순 이완구 김경희 김종성 김광일
다음주식당봉사	김현주 김문주 홍복선 허정운 박효선 전정현 이재삼 한성건
오늘설거지봉사	5여선교회(46-50세) 다음주설거지봉사 1,2 청년부
커피 판매 봉사	3남선교회

- 교인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안내위원이나 목회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